

# 가작

천유진(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)

## 언어교환

소파에 나란히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자막이 멈췄다 드라마는 눈치도 없이 계속 흘러간다 드라마 속 남자는 목석처럼 서 있는 신호등을 참지 못하고 무단횡단을 하고 화난 얼굴을 한 채 멀리 걸어가는 여자를 향해 소리치고

나는 너의 얼굴을 본다 이 드라마 별로지? 이거 진부하지? 너는 진부하다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음, 그러니까, 지루하다고, 지긋이 눈감으며 자는 흉내를 내자 너는 그제야 방긋 웃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

너는 한국에서만큼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얼굴로 말한다 나는 나의 말실수를 설명하려고 하루를 헤맨 적이 있었어요. 길고양이가 나를 훑아주었을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지요. 번역기가 다음 문장을 기다리는 동안

너는 모국어를 유난히 꼭꼭 씹어 발음하고,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옮긴다 나는 영어로 번역되는 사이 생략되었을 말 줄임표를 생각한다 나는 내 말실수를 이렇게 쉽게 용서받아도 되는 걸까요?

국을 오래 끓이면 연기에도 냄새가 났다 방 안 모든 사물에 국 냄새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창문을 열어두면 커튼이 내장 없는 유령처럼 흔들렸다 소파를 주무르며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사이

방충망을 뚫고 행인들이 내 방에 하나씩 걸어들어왔다 그들은 온갖 자세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두고 싸웠다 몇 초에 한 번씩 채널을 돌렸다 800번대 화면은 검고 희고 이따금 회색이었다 하지만

나와 너 앞에 놓인 화면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여러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나는 남자의 목에 단단히 선 핏줄을 본다 그는 여자를 향해 단단히 손가락질한다 나는 궤종시계의 줄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는 상상을 한다